

■데뷔 40주년 앞둔 배우 김미숙

“11년만의 라디오 신인 때 느낌이죠”

KBS클래식FM ‘김미숙의 가정음악’ 진행

“30초짜리 스포츠 녹음하는 데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래 했지만, 아무래도 11년만이니깐요. 신인이 된 기분이에요. (웃음)”

28일 KBS클래식FM(93.1MHz) ‘김미숙의 가정음악’을 통해 11년 만에 라디오 DJ에 복귀하는 배우 김미숙(59)은 오랜 시간 라디오를 떠나있었지만, 마음속엔 늘 라디오가 있었다고 했다.

최근 서울 여의도 KBS에서 만난 그는 “연기자로서 연기를 정말 사랑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라디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며 “11년 전 ‘세상의 모든 음악’을 작품 스케줄과 아이돌 양육 문제로 그만둘 때도 참 아쉬웠다”고 말했다.

“라디오로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 많았기에 라디오를 그만둔 순간부터 지금까지 누군가 만날 때마다 ‘라디오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송국의 러브콜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거절하면 영원히 안 부를까 봐요. (웃음) 다시 음악도 많이 듣고, 음악회도 가고, 음악 잡지도 보고, 다시 절 위한 시간들을 갖고 싶네요. 적어도 5년은 계속 해보려고요.”

안방극장과 라디오를 오가며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팬이 된 이들은 이번 김미숙의 복귀를 누구보다 기뻐한다고 한다.

“이렇게들 라디오에 관심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축하해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넌 라디오가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결정 잘했다’는 말씀 참 감사하죠. 이분들이 모두 세 시간대 청취자로 와주셔야 할 텐데요. (웃음) 팬들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부담

도 돼요. ‘옛날 같지 않네’ 하실까 봐요.” 김미숙은 그러면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진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당분간은 주어진 식재료를 요리하는 요리사란 생각으로 적응할 생각”이라며 “11년 만에 복귀했는데 어떻게 상 차릴까 하며 레시피를 꺼내 들기엔 이르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음악들을 전달하고, 그 곡 속에 담긴 연주자들의 인생을 청취자와 공유하는 매신저 역할에 충실해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월드뮤직부터 가요, 팝까지 과거 라디오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 그는 클래식 중에서는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 슈베르트의 곡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제가 음악을 가려서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그때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듣죠. 클래식을 집중해 들으면서 작곡가와 연주자의 상황을 상상하기도 했다가, 그게 피곤해지면 가사를 음미할 수 있는 가요나 팝을 듣고요. 그러다 또 그런 ‘언어’들이 진부하게 느껴질 때는 연주곡으로 돌아오죠.”

그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에 “고등학교 2학년생인 딸이 등교할 때 저는 방송국으로 출근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할 것”이라며 “지금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한다”고 다짐했다.

김미숙은 내년 2월이면 배우 데뷔 40주년을 맞는다. 1979년 KBS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지금 톱스타들을 능가할 정도의 전성기 시절을 거쳐 중견에 접어들기까지 특유의 우아하고 고운 이미지를 잃지 않고 있다. 작품 역시 1년에 한 편 정도

코박고락 하고 있다.

“40주년이라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갔나 싶어요. 그런데 전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연기 자로서나, DJ로서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한 번씩 어려움이 와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고민한 것의 몇 갈피가 되는 축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저 일상에 감사해요. 40주년이라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가보다는, 이 일상을 계속 누리고 싶어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20년 만에 연극무대에라도 한번 서고 싶네요.”

그는 “전성기 때나, 여러 오해와 질투로 힘들 때나, 지금이나 저는 늘 순리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며 “‘국민 첫사랑’, ‘결혼하고 싶은 여자’, ‘달고 싶은 스타일’ 등 수많은 수식어 속에 있던 시절에도 한 번도 스스로 나서본 적이 없었다. 전 그저 네 자매 중 큰 언니, 엄마 아빠의 딸, 그저 편안한 친구로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게 된 것은 라디오 힘이 컸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라디오가 잘 편안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라디오는 한번 말하면 일과판파, 들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역시사지하게 되죠. 특별한 적하기보다 겸손하게 되고요.”

김미숙은 어떤 배우이자 DJ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느냐는 물음에는 “사람들 각각의 마음속에 이미 저는 어떤 ‘그녀’로 각인돼 있을 것”이라며 “실망하지 않게 관리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오늘 MBC 스페셜 ‘누운 배, 94일의 기록’

‘MBC 스페셜’이 세월호를 일으키기 위해 94일 동안 고군분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한다.

MBC TV는 28일 밤 11시 10분 ‘MBC 스페셜’이 ‘누운 배, 94일의 기록’ (사진)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배를 바로 세우기로 하고 1만 톤(t)급 해상 크레인이 도착해 선체를 세우는 94일을 담았다.

세월호 직립은 바다와 90도로 누워있던 배를 바다와 평행을 이루도록 돌려 누이고 직립을 하기 위해 구조보강작업을 한 뒤 1만 톤 크레인으로 바로 세우는 세 단계로 진행됐다. 하루 평균 185명, 연인원 1만7천500명의 기술자가 동원



됐다. 제작진은 지난 10일 4년 만에 다시 선 세월호와 함께 현장을 지키던 기술자들과 유가족들의 모습까지 함께 담았다. /연합뉴스

YG 빅뱅 승리·블랙핑크 신곡 발매 준비

빅뱅 승리(사진)와 블랙핑크가 곧 새 앨범을 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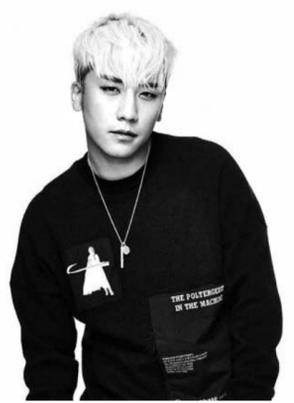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은 26일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속 가수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7월 초 정규 1집을 발매한다. 승리는 2011년 미니 1집, 2013년 미니 2집을 냈으며 솔로 앨범을 내는 건 5년 만이다. 오는 8월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며, 9월까지 일본 3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이어간다.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입대할 계획이다.

지드래곤과 태양이 지난 2월, 대성이 3월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만큼 승리까지 입대하면 빅뱅 멤버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양현석은 “댄스그룹이 10년을 유지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인데, 빅뱅처럼 매년 성장하며 더 큰 인기를 얻는 그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승리를 제외한 4명이 내년 1월 제대하므로 빅뱅의 공백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6월 15일 첫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2016년 8월 데뷔한 블랙핑크는 현재까지 ‘붐바야’, ‘불장난’, ‘마지막처럼’, ‘휘파람’, ‘스테이’ 등 싱글 5곡만 발표했다. 지난해 여름 일본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연 뒤 예능을 제외하면 뚜렷한 활동이 없어 팬들의 원성을 샀다.



양현석은 “오래 준비한 만큼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완성했다. 연말까지 계속 신곡을 낼 테니 블랙핑크의 거침없는 질주를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운 힙합 크루도 출범한다. 1996년 설립된 YG는 1999년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한 힙합 앨범 ‘YG패밀리’ 1집을 내냈지만, 구성원의 음악적 지향이 다양해지며 이어가지 못했다. 이에 그룹 워너, 아이콘을 주축으로 새로운 크루를 만든다는 게 YG의 구상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50 전성애 웨수들	30 KBC 모닝 730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⑨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건법남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00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	00 우리가 만난 기적 (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비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⑫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검법남녀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 (재)
①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이카데미 (재)	00 다큐멘터리 3일 (재)	3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재)	55 닥터 365
②	50 콘서트 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재)	10 좌중우돌 한국 유람기	00 뉴스브리핑
③	40 공감다큐. 사람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사이닝스타 35 뽀빠뽀 뽀모야 놀자	
④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5 랭킹쇼 1.2.3 스페셜	
⑤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⑦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45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평가전	15 전성애 웨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⑧	25 내일도 맑음		55 섹션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⑨	00 KBS 뉴스 9 45 KBS 뉴스 9			
⑩	00 2018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초청토론회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검법남녀	00 기름진 멜로
⑪		10 안녕하세요	10 좌중우돌 한국 유람기 (재)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⑫	00 KBS 뉴스 10 다큐세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FIFA 러시아월드컵 특집 안정환과 축구 먹는 남자들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팽이버섯 된장국, 어묵 가지볶음>	16:15 웅강한 소방차 레이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빠이(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6:45 당동맹 유치원1 2(재)
07:00 플라워링 하트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30 로보카 폴리	13:00 다큐 오늘 <인도네시아 참치잡이>	17:30 마사오 곶
07:45 출동! 슈퍼승리2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7:45 띠띠뽀 띠띠뽀
08:00 당동맹 유치원1 2	13:40 방귀대장 뽀빠이	18:00 생방송 퓌퓌! 보니하니 1 4
08:30 허풍선이 과학쇼(재)	14:30 똑딱맨	19:00 스파이더맨
08:45 방귀대장 뽀빠이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30 EBS 뉴스
09:00 몬카트	15:15 파파리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0:40 세계테마기행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여수, 맛보다 손속도에 반하다>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메디컬 다큐 7요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8일(음 4월 14일 庚申)

<p>36년생 겸손하다면 더 존귀한 위상에 놓인다. 48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큰일을 도모해야 한다. 60년생 확실하다면 실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72년생 대량은 비에 젖지 않는 법이다. 84년생 상호간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08, 88</p> <p>子</p>	<p>42년생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54년생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나라. 66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이다. 78년생 진행하는 방식이 구체적이어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90년생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니 조심성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74, 12</p> <p>午</p>
<p>37년생 원리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49년생 파격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61년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73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85년생 형식을 멀리하고 실사구시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p> <p>행운의 숫자 : 50, 99</p> <p>丑</p>	<p>43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천이 될 것이다. 55년생 매사가 순조롭다. 67년생 자선책과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79년생 너구린 상태이니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91년생 밤심하다가는 역장이 무너질 수도 있느니라.</p> <p>행운의 숫자 : 34, 22</p> <p>未</p>
<p>38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뤄야 큰 것을 얻는다. 50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62년생 계획했던 본래의 의도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도 있다. 74년생 재고하라. 86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p> <p>행운의 숫자 : 42, 74</p> <p>寅</p>	<p>44년생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 뻗지리라. 56년생 명분은 이길 리라보면 실속이 없어지는 법이다. 68년생 애석하리라. 80년생 임시방편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92년생 대체로써 자리 잡았으니 강구하더라도 쉽지 않은 법이다.</p> <p>행운의 숫자 : 40, 25</p> <p>申</p>
<p>39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해결 된다. 51년생 진력 한다면 배가 되어 돌아오리라. 63년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기본 절저는 분명히 지켜야 하느니라. 87년생 본심과는 달리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p> <p>행운의 숫자 : 03, 63</p> <p>卯</p>	<p>45년생 구태의연함을 정리하여야 한다. 57년생 더불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69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81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93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p> <p>행운의 숫자 : 73, 11</p> <p>酉</p>
<p>40년생 호사다마하는 세상의 이치를 알라. 52년생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다. 64년생 기반을 이뤄가는 면모이다. 76년생 중간 점검이 성과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88년생 파격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p> <p>행운의 숫자 : 63, 50</p> <p>辰</p>	<p>34년생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46년생 정면으로 맞대응 하라. 58년생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70년생 위기를 모면하고 볼 일이다. 82년생 희망찬 기운의 진행이 계속되는 운이므로 개치지 말고 임하라.</p> <p>행운의 숫자 : 48, 31</p> <p>戌</p>
<p>41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옳다. 53년생 생 부담이 경감 되겠다. 65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77년생 순응하는 자세가 가장 무난하다. 89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너야 할 배가 필요하다.</p> <p>행운의 숫자 : 75, 47</p> <p>巳</p>	<p>35년생 판세에 도움 되지 않는다. 47년생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59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71년생 때가 아니니 물러나서 기다려야겠다. 83년생 별 것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p> <p>행운의 숫자 : 97, 72</p> <p>亥</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